

“아이들이 지역 미래...체감형 나눔 앞장”

김창승 초록우산 광주청년후원회장

“환경 때문에 꿈을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가능성을 믿고 응원하는 어른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주세요.”

김창승(46·사진) 초록우산 광주청년후원회장은 25일 지역 아이들이 환경의 한계에 가로막히지 않도록 결연에 응원하는 어른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광주 출생인 김 회장은 철강 제조기업(주대로스틸)을 운영하며 지역에서 사업 기반을 다져온 기업인이다.

현재 법무부 청소년범죄예방위원 활동을 비롯해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후원, 북구자원봉사센터 이사 등 다양한 나눔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김 회장에겐 나눔은 거창한 결심보다 자연스러운 삶의 방식에 가깝다.

그는 “어려서부터 내가 가진 것을 혼자 쓰기보다 주변의 어려운 친구들과 나눔 때 더 큰 보람을 느꼈다”며 “학창 시절 봉사동아리를 이끌

철강 제조기업(주대로스틸 대표

청소년범죄예방위원·아동 후원

북구자원봉사센터 이사 등 활동

“3040세대 참여 넓히는데 주력”

며 나눔을 실천해 온 경험이 자연스럽게 지금까지 이어진 것 같다”고 소회했다.

현재 대로스틸을 비롯해 철강 가공 등 여러 사업을 이끌고 있지만, 사회에 첫발을 내디딘 곳은 영업 현장이었다.

김 회장은 자동차 판매와 철강업계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며 사람을 대하는 태도와 자기관리의 중요성을 배웠다.

그는 “큰 성취감을 느낀 시기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며 성장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사업이 자리 잡은 후에는 지역사회와 아이들을 위한 후원 활동에 더 적극적으로 나섰다. 아



이들과 청소년을 둘러싼 문제는 사건이 발생하면 뒤에야 관심이 집중되는 경우가 많다는 게 안타

까웠기 때문이다.

김 회장은 “사후약방문식의 현실을 보며 사전에 곁에서 살피고 도울 수 있는 어른들이 많아져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아이들이 환경 때문에 꿈을 포기하지 않도록 돕는 일이 지역 어른들의 역할이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지역 내 30·40세대를 중심으로 결성된 초록우산 광주청년후원회도 이 같은 고민에서 출발했다.

후원회는 상대적으로 기부 참여율이 낮아지고 있는 젊은 세대가 직접 나눔의 주체로 나서도록 돕고, 단순 후원을 넘어 현장에서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살피는 것을 목표로 한다.

김 회장은 “기부는 돈을 내는 것으로 끝나는 일이 아니라, 아이들이 실제로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직접 보고 느끼는 과정이 중요하다”며 “아이들은 우리 지역의 미래인 만큼 광주청년후원회를 중심으로 지역 CEO들과 함께 아이들에게 실질적으로 외닿는 봉사과 후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연성기자



김응호 해군 3함대 중사 ‘소방서장 표창’

해군 제3함대사령부는 25일 “기지지원대대의무대 소속 김응호(사진 왼쪽) 중사가 지난 23일 목포소방서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한 공로로 소방서장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김 중사는 지난 3월 교통사고 현장에서 신속하고 전문적인 응급처치로 초등학교생의 소중한 생명을 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김응호 중사는 “의무 부사관으로서 평소 속달한 응급처치법 덕분에 당황하지 않고 대응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군인으로서 맡은 바 본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목포=정해선기자



보성경찰, 민·관 협업 범죄 예방 활동

보성경찰서는 “최근 이상동기 범죄에 대한 사회적 불안이 급증함에 따라 지역공동체와 협업해 학생 통학로 등 취약지 중심으로 범죄 예방 활동 순찰을 실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활동 순찰은 별교을 자율방범대를 비롯해 민·관·경 협업으로 진행됐다.

보성경찰은 합동순찰과 취약지 범죄 예방 시설물 확충 등 선제적 경찰 활동을 통해 평온하고 안전한 지역 분위기를 만들어갈 방침이다.

신완수 경찰서장은 “보성경찰은 지역공동체와 함께 협업해 안전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보성=임병연기자



무안경찰, 장마철 대비 오토바이차도 점검

최영수 무안경찰서장은 본격적인 장마철을 앞두고 지하차도 현상 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 23일 오토바이차도 점검을 찾아 종합적인 안전 점검을 실시했다.

현장에서는 집중호우 시 차량 진입을 막는 진입차단시설과 진행표시등의 원격 작동 여부를 정밀하게 살폈다.

배수펌프장도 방문해 핵심 설비인 배수펌프 3기의 가동 상태와 배수구 정비 현황 등 선제적으로 위험 요소를 꼼꼼히 확인했다.

최영수 서장은 “기상이변으로 국지성 집중호우가 빈번해진 만큼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 체계를 유지해 군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빈틈없는 재난 대응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무안=김성호기자

결혼

▲김홍구·김문희씨 아들 상호군, 장동민신도리코 담양대리점 대표·문옥자씨 딸 수훈양=27일(토) 오후 5시 덕해플래팅담양 3층 커피티홀(서울 강남구 논현동 94-9), 02-421-1121, 010-4610-8161.

부음

▲박찬근씨 별세, 철우·점우·천우·안우·안우씨 부친상, 이은심·선효경·이점미·우윤정·한미송씨 시부상=발인 26일(금) VIP장례터인 VVIP 101호 (062-521-4444).

▲노이순씨 별세, 이정권(DH 그룹 회장)씨 모친상=발인 26일(금) 오전 7시30분 광주 광산구 스카이장례식장 201호 (062-951-1004).



광주매일신문 ‘AI 활용 기사쓰기’ 사내연수

광주매일신문은 25일 본사 교육실에서 편집국 직원들을 대상으로 사내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에서는 김형주 아테라커뮤니케이션 대표가 강사로 나서 ‘AI 활용 기사쓰기와 저작권 문제’를 주제로 강의했다.

김 대표는 국가통계포털 데이터와 의회 회의록을 AI로 분석해 기사 초안을 작성하고, 연설문에서 필요한 내용만 발췌·요약하는 등 실무 위주의 활용법을 시연해 참석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그는 “AI는 기사를 대체할 수 없지만, AI를 부릴 줄 아는 기자가 그렇지 않은 기자를 앞서

간다”며 “백데이터 수집과 녹취록 정리 등 반복 작업은 AI에 맡겨 생산성을 크게 높이고, 기자는 차별화된 기획과 현장 취재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대표는 무분별한 맹신에 대해서는 철저한 경계를 당부하며 “사용자가 프롬프트를 통해 지속적으로 학습시키면 기자의 문체에 맞춘 훌륭한 보조자가 될 수 있다”면서도 “생성된 결과물에는 AI의 관점이 개입될 수 있으므로 기사 작성 시 저작권과 출처 확인, 철저한 교차 검증 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주성학기자



전남교육청, 발명교육 개인·기관상 수상 ‘성과’

전남도교육청이 대한민국 발명교육 분야 최고 권위의 시상식에서 개인상과 기관상을 배출하며 발명·지식재산 교육의 우수성을 입증했다.

25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전남 경주 라한셀렉트 호텔에서 열린 ‘2026 대한민국 발명교육대상·우수 발명교육센터’ 시상식에서 개인 부문 최고 영예인 공로상과 교사상 동시 수상을 비롯해 기관 부문에서도 광양발명교육센터가 3년 연속 우수 발명교육센터로 선정됐다.

특허청이 주관하고 한국발명진흥회가 주최하는 ‘대한민국 발명교육대상’은 전국에서 발명교육에 헌신한 최우수 교육자와 기관을 발굴해 시상하는 교육계의 ‘발명 노벨상’으로 꼽

힌다. 개인 부문 공로상을 수상한 김관규 삼향북초교 교감은 2017년 교사상 수상에 이어 올해 공로상까지 거머쥐며 ‘두 부문’을 모두 수상한 전국 최초의 교육자라는 타이틀을 얻었다.

교사상을 받은 김연태 도원초 교사는 코로나 19 시기에도 중단 없이 발명수업을 이끌었으며, 여수 지역 최초로 ‘중등 발명영재 정규반’을 개설해 체계적인 영재교육 기틀을 마련했다.

광양발명교육센터는 지역사회와 연계한 밀착형 발명 프로그램과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한 선도적인 교육과정 운영으로 전국 발명교육센터의 표준 모델을 제시했다. /박선욱기자

담양 창평면 ‘기관·사회단체협의회 현판식’

담양군 창평면은 지난 25일 창평문화의 집에서 김성민 면장과 이원후 창평면 기관·사회단체협의회장을 비롯한 관내 단체장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평면 기관·사회단체협의회 현판식’을 가졌다.

이번 현판식은 지역 발전을 위한 협력체계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협의회는 체계적인 운영 기반을 다지기 위해 정관을 새롭게 제정하고 공식적인 기능과 원칙을 정밀할 방침이다.

또한 지역 발전 정책 제안은 물론, 담양대나무축산물 창평전통음식축제 등 지역 대표 행사와 연계한 발전 방안을 중점적으로 모색해 문화·관광을 활성화하고 각종 현안에 공동 대응하며 지역 경제와 공동체 회복에 힘을 보탬 예정이다. /담양=정승균기자



이원후 협의회장은 “오랜 기간 이어온 지역 사회의 소통 체계를 제도화한 만큼, 창평 발전을 위해 다양한 목소리를 모으는 구심점이 되겠다”고 밝혔다.

김성민 창평면장은 “협의회가 주민과 행정을 잇는 든든한 소통 창구가 되도록 아낌없이 협력하겠다”고 전했다. /담양=정승균기자

구례군 반달곰씨름단, 괴산대회 단체전·국화급 우승

구례군은 “최근 군 반달곰씨름단이 제3회 괴산유기농장사씨름대회에서 단체전 우승과 국화급 1·2위를 휩쓸며 전국 최정상급 실력을 과시했다”고 25일 밝혔다.

충북 괴산군에서 열린 이번 대회 국화급(75kg 이하) 결승에서 이세미 선수가 같은 팀 엄하진 선수를 2대0으로 꺾고 장사에 등극했다.

첫판을 치열한 연장 접전 끝에 판정승으로 가져간 이 선수는 두번째 판에서 잡채기를 성공시키며 우승을 확정했고, 엄 선수는 준우승을 차지했다.

기세를 몰아 단체전에서도 값진 우승을 일궈냈다. 결승전에서 거제시를 만난 구례군은 매화급 선재림과 국화급 엄하진 선수가 연달아 승리하며 2대0으로 승기를 잡았다.

이어 무궁화급 설윤아 선수가 한 점을 내줬으



나, 마지막 주자인 김시우 선수가 승리를 거두며 3대0로 최종 우승을 확정 지었다. 구례군 관계자는 “이번 성과는 박공선 감독 취임 이후 처음 거둔 단체전 정상 탈환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구례군이 명실상부한 여자 씨름 명가임을 다시 한번 각인시키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구례=김세중기자

옛전남도청복원추진단, 5·18 유해발굴에 포상금 기부

5·18기념재단은 25일 “옛전남도청복원추진단 소속 직원 5명이 옛 전남도청 복원과 개관에 기여한 공로로 받은 특별성과 포상금 일부를 지난 23일 기탁했다”고 밝혔다.

추진단 소속 직원 5명은 지난달 18일 개관한 옛 전남도청 복원 및 개관 특별전시를 성공적으로 추진한 공로로 특별성과 포상금 1천만원을 받았다.

이들은 이 가운데 절반인 500만원을 5·18추진회 공동대표 미해결 과제인 암매장 유해 발굴 사업에 기부했다.

기부에 참여한 이동준 추진단 과장은 “우리



의 작은 정성이 이름 없이 잠들어 계시는 희생자들을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는 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연성기자

목포 만호동 지사협, 6·25 참전유공자 위문

목포시 만호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23일 6·25 참전유공자 2명과 올해 별세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가정을 방문해 감사와 존경의 뜻을 표하고 여름 자켓과 세탁용품, 생필품 꾸러미 등 맞춤형 위문품을 전달했다.

이준 만호동 지사협 위원장은 “참전유공자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며 “앞으로도 국가유공자를 존중하고 예우하는 지역사회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목포=정해선기자

